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 방안

— 우리 전통주를 세계적인 명주로 육성하자!! —

조성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

■ 전통주 산업현황

2006년을 기준으로 전통주 산업이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세액을 기준으로 0.4%(전체주세 2,277,284백만 원), 출고량 기준은 0.2%(전체출고량 3,389,579kl)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1993년부터 전통주에 대해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실시하여 2007년 12월까지 467건을 추천받았다. 이중 가동 중인 면허는 43.9%인 205건에 불과하였고 평균 고용인원은 5.5명이었다. 경영주체별 운영현황은 2007년 총 205건 중에 영농조합법인이 67건(32.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영규모화를 위해 농업인에서 법인형태로의 전환증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기준으로 전통주 제조업체 매출액은 내수 984억 원, 수출 43억 원으로 총 1,027억 원이다. 운영 중인 205개의 면허는 업체수로 볼 때 152개소(업체별 중복면허 소지)로 평균 매출액은 6억 8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신규 가동업체 증가로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의 전통주 주류별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약주나 기타 증류주보다 과실주가 75%로 매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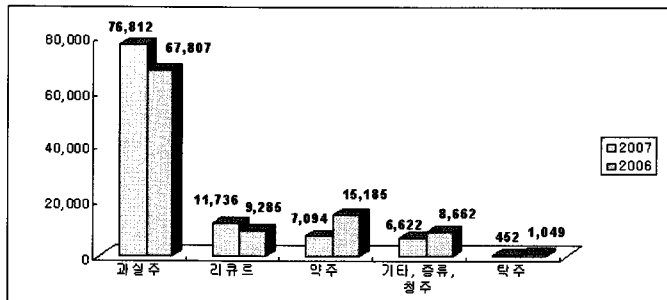


그림 1. 주류별 매출액 비교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전통주 운영 실태조사(2007.12 기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주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해보면 수출 동향은 2006년까지 상위 5개 수출국인 일본,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2007년 싱가포르가 순위에서 하락하면서 몽고가 5위로 상승했다. 상위 5개 수출 품목은 여전히 소주, 맥주, 기타곡물발효주, 위스키, 알코올성합성조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수입 동향은 2006년까지 상위 5개 수입국인 영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순위가 나뉘었는데 2007년 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락하고 칠레가 상위 5위로 상승하였다. 상위 5개 수입 품목은 위스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2007년 들어 포도주가 상승하여 다음 순으로 에틸알코올, 맥주, 포도증류주로 나타났다.

■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전통주 육성을 위해 '93년부터 농업인, 주류부문 명인 등에 주류제조면허 추천제도를 도입(제조면허는 국세청)하여 '07년까지 467건의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였고 현재 152개 업체(205건)에서 다양한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다. 지원실적을 보면 시설현대화(136억 원), 포장용기 및 디자인(1억 3천만 원), 원료수매자금(25~30억 원/년), 전통주 R&D(25건)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전통식품 베스트 5 선발대회('00, '01, '02, '04), 품평회('07) 개최 등을 통하여 전통명주 발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금년에는 '전통주 품질향상을 위한 전용누룩 제조 및 고품질민속주 개발'('07~'10,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개발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연구'('08. 2, 숙명여대 및 전통주연구소)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우수 전통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행사('08. 5. 2~3, 남산 한옥마을)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통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전통주 홍보·관측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현지 언론 및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한산소곡주 등 3개 업체 제품이 금년 내에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통주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8년 6월 전통주의 주세율을 50% 인하하는 주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표 1).

표 1. 개정된 세율의 변화(주세+교육세+부가세)

구분	주세(%)		전체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탁주	5	2.5	15.5	12.8
약주·청주	30	15	43	26.5
증류·리큐르주	72	36	113	61.5

* 과실주는 '05년부터 50% 감면 적용(금번 개정안 적용 대상 아님)

개정된 세율을 토대로 2006년 말 기준으로 전통주 주세 감면효과를 추정해보면 표 2와 같다. 주세가 50%정도 인하하여 과실주 포함 시 주세 감면 추정액은 49억 원으로 예상된다.

표 2. 전통주 주세 감면효과(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과세표준	개정 전	개정 후	감면액
탁주	317	15 5%	8 2.5%	△7
약주·청주	2,497	749 30%	375 15%	△374
증류·리큐르주	3,134	2,255 72%	1,128 36%	△1,127
기타주류	564	202 35.8%	101 17.9%	△101
합계	6,512	3,221	1,612	△1,609

* 자료: '06년 말 기준(2007. 국세청 통계연보)

■ 전통주 산업의 문제점

전통주는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으로 원료비 상승에 따라 주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영세·소규모 운영업체가 많아 제조단가 및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렵다. 또한 경영에 필요한 고급정보 및 기술이 부족하여 낮은 시장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주류를 '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보호법)로 인식해오고 있고 세원관리 수준에서 100여 년 동안의 관리로 주류의 규격, 제조방법, 제조시설 기준 및 유통관련 각종 규제 등 전통주 육성에 필요한 제도도 미비하다. 또한 과실주, 약주, 맥주 등 저도주와 고도주 간의 구분 없는 주세체계, 품질고급화를 저해하는 종가세 체제 등 주세제도도 불합리하여 전통주산업 육성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 추진방안

정부는 외국의 술에 밀려 점차 국내 주류시장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주를 계승하고 세계인이 선호하는 명주로 육성시키기 위해 전통주 산업진흥에 필요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통주에 대한 표준규격은 탁주나 약주에만 제정되어 있는데 청주나 과실주, 리큐르, 증류소주 등 4종의 품질인증 표준규격도 금년까지 제정하여 전통주의 품질고급화

에 기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주의 제조면허추천요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추천대상자를 현행 '주원료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자'에서 '주원료의 50% 이상을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공장 소재지 관할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추천서의 검토기간을 현재는 시·도지사가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는 것에서 시·도지사가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간 매출이 없는 자, 부정 추천자 등은 추천을 취소하는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위해 통신판매 수량제한을 삭제하거나 1회 50병으로 확대하고 우체국으로 한정된 통신판매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전통주 산업을 농업 및 농촌 관광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주의 개발을 위한 시설현대화, 포장용기 및 디자인, 경영 컨설팅 등 생산시스템의 개선 지원, R&D, 품평회 및 해외 판촉전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